

美 “독립기념일에 도발이라니...” 경악·분노



미·일·중·러 반응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이웃나라들은 강한 우려와 함께 ‘엄정 대처’ 의지를 밝히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국민들이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을 꼽고 있는 일본은 즉시 대북(對北)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했으며, 230번째 독립기념일이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에 맞춰 ‘북미사일 충격’을 당한 미국은 일본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긴급 협의에 착수했다.

◇일본=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당황하며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양선언’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6개월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니가타현은 이날 입항할 예정이었던 ‘만경봉 92호’의 입항 허가를 취소했다.

◇미국=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당황하며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양선언’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6개월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니가타현은 이날 입항할 예정이었던 ‘만경봉 92호’의 입항 허가를 취소했다.

◇중국=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결정에 5일 오후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중국으로선 내심 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요한 ‘도발’이라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미하일 카미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국=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당황하며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양선언’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6개월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니가타현은 이날 입항할 예정이었던 ‘만경봉 92호’의 입항 허가를 취소했다.

◇일본=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당황하며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양선언’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6개월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니가타현은 이날 입항할 예정이었던 ‘만경봉 92호’의 입항 허가를 취소했다.

◇미국=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당황하며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양선언’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6개월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니가타현은 이날 입항할 예정이었던 ‘만경봉 92호’의 입항 허가를 취소했다.

본대한국민단(민단)측은 당혹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민단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도 발사해선 안됐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미국=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워싱턴의 경축 분위기를 일순간에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4일은 미국의 230번째 독립기념일이자 이날 워싱턴 중심부에서는 성대

日 “평양선언 위반... 만경봉호 입항 금지” 中 “교착상태 6자회담 영향 미칠까” 곤혹 러 “한반도 핵긴장 완화 찬물” 유감 표명

한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저녁에는 화려한 불놀이가 예정됐으나 백악관과 의회 등 워싱턴 정가는 저녁 무렵 전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으로 일순 ‘무거운’ 긴장국면으로 전환했다.

미국 본토를 감타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놀라움을 감지 못한 채 ‘도발행위’,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미 행정부는 국내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

박한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시간으로 오후 2시 33분부터 연쇄적으로 이뤄져 미국의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 시간(오후 2시 38분)과 겹친다는 점을 언급, “북한의 의도는 국제사회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결정에 5일 오후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중국으로선 내심 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직접 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마당에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북한의 행동은 중국의 입장에서 당혹감을 넘

어 국제적으로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가 가뜰이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6자회담에 미칠 여파를 생각하면 의장국인 중국으로서는 몹시 곤혹스러울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요한 ‘도발’이라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미하일 카미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알리는 언론사의 전광뉴스판을 우산을 쓴 도쿄 시민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일 ‘유유자적’

미사일 발사 앞두고 공연관람·경제시설 시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진 5일 평양 시내 거리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과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눈에 띌 평온한 모습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공연을 관람하거나 경제시설을 시찰하는 등 오히려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언론들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평양의 호텔에서는 일반 채널과 교육,문화 채널 등 2개 TV채널을 시청할 수 있으나 이날 아침에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방영되지 않았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도 김정일 최고지도자가 한 생산공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톱뉴스로 전해졌을 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일질 언급이 없었다.

평양을 방문중인 일본 기자단의 안내를 맡은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한 관계자는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나도 일본 기자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공개활동에 나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발사를 앞두고 러시아 민속무용단 공연을 관람하고 경제시설을 시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전선 시찰 길에 이미 한차례 관람한 바 있는 러시아 모이세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을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들과 함께 또다시 관람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어 4일 중앙통신은 그가 새로 건설된 평양 대성타이어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난달 군부대를 잇달아 시찰하는 등 ‘군부 독이’에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달 15회 공개활동에 나섰는데 군부대 시찰이 13회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분야 시찰과 대외활동이 각각 1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 보도가 잇따르던 지난달 12일 이후 2~3일 간격으로 모두 8차례 군부대를 시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쟁맨 광주 타깃”

네트즌, 北 미사일발사 비난

북한이 5일 오전 대포동 2호 등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북한을 맹비난하고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광주·전남 네티즌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면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가 있는 광주가 미사일의 ‘타깃’이 될 것이라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 등에는 ‘북한은 적이다. 이제까지 통일을 위해 벌였던 노력은 다 헛짓이다’(ID

mmmmmmnnbbb) ‘우리끼리, 민족 자주~~ 하다가 56년 전에도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의 의도는 오로지 대남적화뿐이다’(ID 경술한속사인)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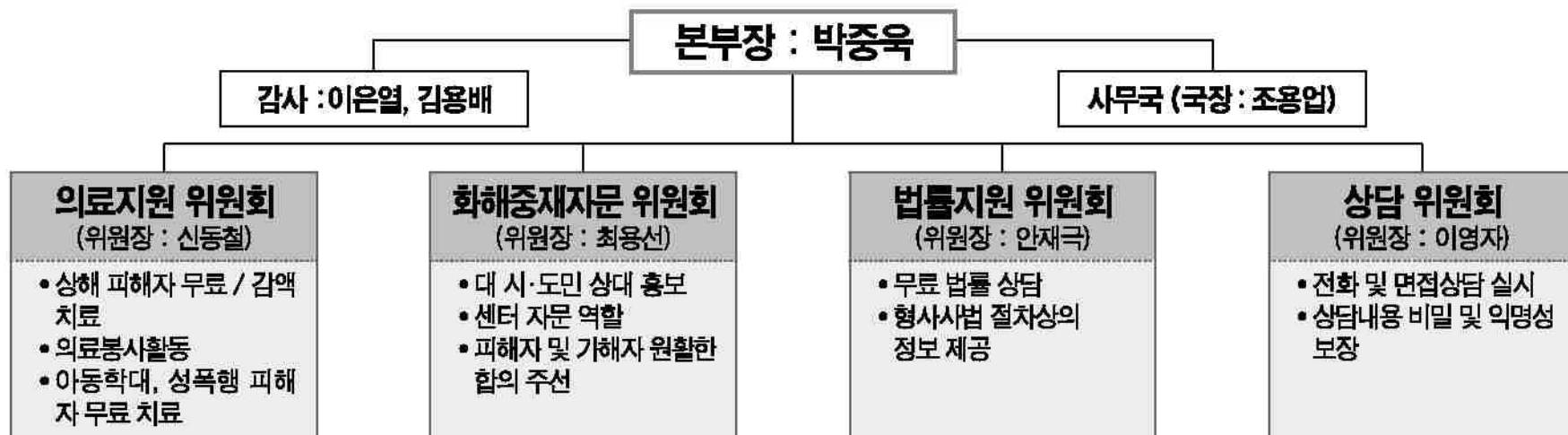
미국을 비난하는 글도 많았다. ID ‘theopstein’는 ‘미국이 나쁘다.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했고, ‘자기들은 핵무기가 뭐다 매일 시험발사하면서 왜 북한은 안되냐’(ID chlwogkr6) 등의 의견도 있었다.

ID ‘john-26’은 ‘이러다 전쟁나는 거 아냐? 전쟁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군기지가 공격당할텐데’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임주영기자 jhim@kwangju.co.kr

피해자와 아픔을 같이합니다!!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 및 면접상담, 무료법률상담, 무료 및 감액 치료, 화해중재 등을 통한 피해자 구조 사업실시로 광주·전남 시도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실적

년 도	2005년	2006년 (5월현재)
상 담	271	123
법률구조	198	45
의료지원	16	7
구조금제도활용	42	44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상담전화 : 062)231-4751~2 Fax 234-4752
- Homepage : www.gjcvc.net

- 장 소 : 광주지방검찰청 208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후 원 :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청